

액취증

치료할 수 있다



오성원
오성원성형외과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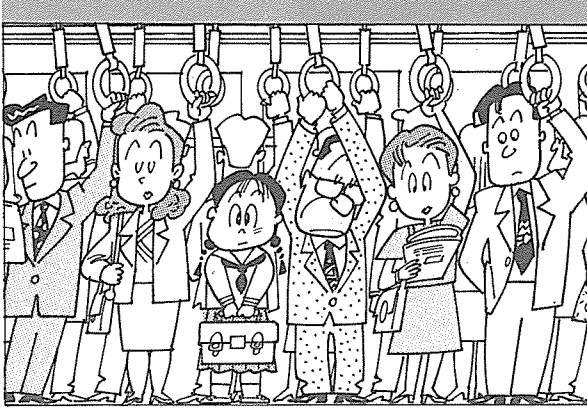
요즘은 각종 화장품은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향수도 일반화될 정도로 다양해져 채취도 다양각색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채취 말고, 이른바 사람 나름대로 땀냄새라는 것이 있다. 계절이 여름이고 노출 부위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땀이 많은 시기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땀냄새, 땀냄새에 시달리는 계절이 온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치뤄야 하는 땀냄새에 대한 인내는 누구나 할 것 없는 계절의 통과와 레일텐데, 이 정도의 평범한 고통을 넘어서 무척이나 괴로운 사람도 있다. 이른바 액취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흔히 암내라고 불리우는 액취증은 누구나 있는 겨드랑이의 땀냄새가 비정상적으로 고약한 증상을 이르는데, 자신에게 이 증상이 없다면 잘 연상이 안될 것이다. 예컨대 동물원 맹수사 근처에 다가갈 때 곧바로 코를 자극하는 '노린내'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동물들 특유의 노린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액취증 환자들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액취증은 그렇다고 당사자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혐오스러운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본인의 자의식이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특히나 액취증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액취증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냄새



흔히 암내라고
불리우는 액취증은
누구나 있는
겨드랑이의 땀냄새가,
비정상적으로
고약한 증상을
말한다.

를 맡는 신경인 후각신경은 계속되는 냄새에 대해 쉽게 피로를 느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못 느끼는 수가 있다.) 대인 공포증이 발생하게 되며, 혼자만 있으려고 하기에 고립적이고 우울한 성격이 되기 쉽다. 즉 대인관계와 성격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액취증은 발견하는 즉시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미난 것은 백인이나 흑인은 거의 모두가 액취증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전혀 심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들은 액취증이 별로 없다. 어쩌다 한 두명이 냄새가 나니 이것이 참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같은 동양권인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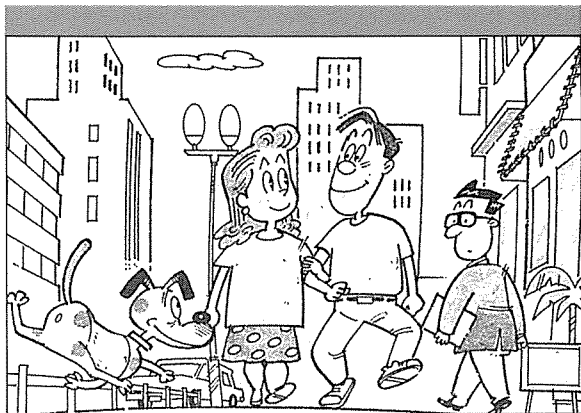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액취증은 소수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모두 액취증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기 위해 별다른 애를 쓰지 않는 서양인들처럼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사실 액취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향수문화를 발달시키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고약한 몸냄새를 풍기는 것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가끔 액취증은 유전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액취증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단지 액취증이 있는 집안에 액취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오해를 불러왔을 뿐이다. 꼭 부모가 액취증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액취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액취증 발생 확률이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 뿐이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각 다른 성질의 땀을 분비한다. 얼굴이나 손바닥에 있는 땀샘은 에크린선(수액선)이라 불리우며 대부분 물로 되어 있는 땀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겨드랑이에 분포하는 땀샘은 아포크린선(대한선)이라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한 땀이 분비되고 이 지방산이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등을 발생시키므로 냄새가 나는 것이다. 즉 액취는 지방이 부패하면서 생기는 냄새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원인에 따라 액취증의 치료법도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겨드랑이를 깨끗이 자주 닦아 주고 건조시키며 항생제 연고나 탈취제 등을



액취증은 성격형성,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증상을 완치시킬 수 있다.

발라 세균의 증식을 없애는 국소적인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완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땀을 덜 나오게 하기 위해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쓰거나, 국소적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대되는 효과는 미미하고, 합병증이 심하여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또 교감신경 절제술의 방법이 있으나 현재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다한증(땀이 많이 나오는 증상)에는 효과가 있으나, 겨드랑이에 선택적으로 땀을 덜 나오게 하기는 힘들며, 향후 연구에 따라 미래의 수술법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세번째는 지방산을 분비하는 땀샘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전기 분해술과 수술적 제거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전기 분해술이란 전기를 이용하여 땀샘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론상으로는 흉터가 전혀 나지 않는 이상적인 방법이나 실제로는 한번에 완전히 시행할 수 없고 여러번 나누어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또 재발이 많아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액취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나 현재로는 수술적으로 땀샘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 수술법을 사용할 때 겨드랑이 털이 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봉합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수술 후 흉터가 많이 남고 또한 팔의 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서 요즘은 잘 쓰지 않는다.

요사이 성형외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법은 겨드랑이에 작은 피부절개를 가한 후 이를 통해 땅굴을 파듯이 하여 땀샘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피부를 봉합해주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술 후 흉터나 운동제한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보통 2~3주 정도 치료하면 액취증을 완치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액취증은 그 자체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치시킬 수 있으므로 발견하면 즉시 치료하면 그뿐이다.

오래 고민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 못된다. 오래 고민하다 보면 그보다 몇배 더 손해를 본다. **㉞**